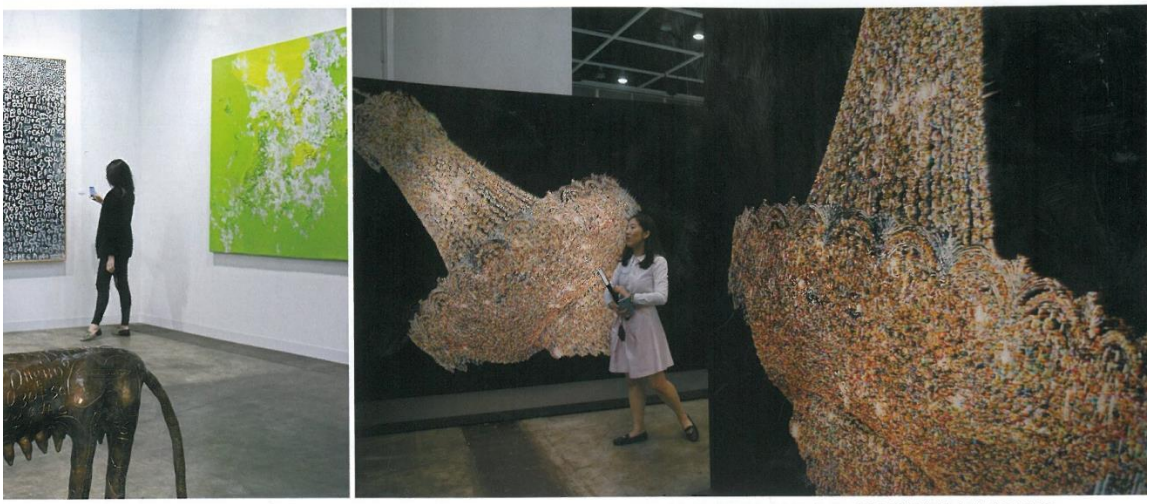
S MAGAZINE

art BASEL

art BASE



2016 아트바젤 홍콩 전시장 스케치. 맨 오른쪽 사진은 '엔카운터' 부문에 참가한 함경아 작가의 자수 상들리에 작품.

홍콩컨벤션전시센터(HKCEC)는 전시장 한 층의 넓이가 얼추 축구장만 했다. 아트바젤 홍콩은 1층과 3층 전시장에서 열렸다. 쇼의 주요 부문인 '갤러리'에 참가한 187개 화랑들이 두 개 층에 나뉘어 자리를 잡았다. 신예 아티스트를 집중 소개하는 '디스커버리'에 참가하는 갤러리는 1층, 큐레이터 프로젝트인 '인사이트'에 참가하는 갤러리는 3층으로 구분해 배치했다. 역량 있는 작가의 대형 작품을 선보이는 '엔카운터'는 1층에 8개, 3층에 8개를 고루 포진시켜 관객에게 시원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겼다.

한국에서는 9개 갤러리가 선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갤러리' 부문에 국제·아라리오·원앤제이·학고재·PKM 갤러리, '인사이트' 부문에 갤러리 엠·리안·박여숙화랑이, '디스커버리' 부문에 313 아트프로젝트가 각각 부스를 차렸다. '엔카운터' 부문에는 국제갤러리 소속의 함경아 작가가 자수 샹들리에 작품을 내놨다.

아트페어는 기싸움의 현장이다. 예술가들의 에너지가 농축된 작품들이 즐비한 현장은 뭐라 형용할 수 없는 에너지 자장으로 가득하다. 그냥 둘러보기만 해도 급세 심신이 피곤해질 정도다. 굳이 비유하자면 축구장에서 세 걸음마다 쭈그리고 앉아 잡초를 뽑아가며 골대까지 왕복을 반복하는 일과 비슷하다고나 할까. 그래서 진정한 아트페어 고수들은 옷은 멋지게 차려입었으면서도 운동화나 스니커즈를 신는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음미하듯 돌아다닌다.

이정재·송혜교·디캐프리오도 찾아

22일 오후 3시, 입장이 시작됐다. 그런데 사람이 많다. 계속 들어온다. VIP 프리뷰인데, 웬만한 퍼블릭 행사만큼이나 많다. 벌써 이 정도라면 6만명이 왔다는 지난해 수준은 어렵지 않게 넘길 수 있을 듯하다.

한국에서 온 셀러브리티도 눈에 띄었다. 미술에 관심이 많아 국립현대미술관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영화배우 이정재와 최근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절정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송혜교가 전시장을 찾았다. 이번에 오스카상을 수상한 영화배우 리어나도 디캐프리오도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주요 아트페어를 찬찬히 살펴보면 세계 미술시장의 동향을 감지할 수 있다. 대형 갤러리들은 세계적인 미술관이나 미술재단 등과 공동보조를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